

# 민주 지도부 광주 방문...“5월 광주도, 내란도 현재진행형”

### 임택 광주 동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서 중앙선대위 공천갈등 속 호남 지지세 균열... 집토끼 달래기 ‘총력’ 정청래 “5·18, 지금 헌법 없었다면 우리는 꽃게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18일 ‘내란정산’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워 호남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도 광주를 찾은 가운데 이들이 12·3 비상계엄의 ‘주범’이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룩을 위한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바짝 날을 세웠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지방선거 공천 갈등으로 인한 ‘균열’이 감지되는 가운데 야당과의 대립 전선을 명확히 하며 ‘오월정신’을 토대로 한 단일대오 승리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임택 광주 동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를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1980년 5월 광주”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쓰러져간 광주 영령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이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연평도 꽃게밥이 됐거나 어느 이름 모를 지하 병커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고

고문을 당했을지 모른다”며 “(그런데 지금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 내란수괴를 다시 세우려는 내란 옹호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5월 광주는 끝나지 않았고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번 지선에서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승리의 역사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무산된 점도 적극 부각했다.

한병도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 힘 반대로 (개헌이) 현실화하지 못했다”며 “5월 영령 앞에서 약속드린다. 민주당은 조속히 개헌을 재추진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광주 방문은 지선 공천을 둘러싸고 발생한 크고 작은 잡음으로 호남 지역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이뤄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는 결선투표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주지를 전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지원동 임택 동구청장 후보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광주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이러 답변하며 자동응답방식 통화가 끊긴 사례가 2308명에게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결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경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지만 납득할 수 없는 감정이 경선”이라며 경선 방식의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사태는 더욱 확대돼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과 중앙선관위 고발장 접수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으로

인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난해하게 이뤄지면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북구의 경우 1~3선거구를 하나로 묶었지만 4~6선거구의 경우 5·6선거구만 묶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광산구는 비아동을 분리해 3·5선거구로 통합, 3명을 선출하는 광산 3선거구로 개편, 경선 후보자들 사이에서 유불리에 따른 불만이 표출됐다.

전남에서는 영광군수 후보자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공방이 격화됐으며,

장성과 화순에서는 대리투표 의혹이 일었다. 광양에서는 불법선거운동 등이 논란을 불러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는 5·18 기념일을 계기로 당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오월정신’을 부각해 호남 ‘집토끼’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호남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호남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받드

시 호남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이재명 정부의 첫 행정통합 사례란 점을 부각하며 “(이곳이) 이재명 정부의 5급3북 전략의 출발점이자 첫 성공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아침에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선대위 회의 뒤에는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민형배 통합시장 후보, 인권도시 비전 발표

### 시민 삶 속 민주·인권 정신 살아있는 도시 구축 인권헌장 제정·시민 공론장 운영 등 정책 추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사진)가 18일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인권이 시민 일상이 되는 인권도시 비전을 내놨다.

민형배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문을 통해 “광주는 국가폭력 앞에서 인간의 존엄과 시민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할 도시”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 정신을 정부 운영을 포함해 시민의 삶 속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

대 방향으로 △인권이 행정의 기준이 되는 특별시 △시민 삶 속 민주·인권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무장애·포용 도시 △광주정신을 세계 인권도시의 미래로 확장하는 국제도시 전략을 제시했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천 공약으로 전남광주 인권헌장 제정, 인권도시 추진 조직 설립, 미래형 인권행정 체계 구축, 인권도시 시민 공론장 운영, 도시 전체 배리어프리 전환, AI 인문 글로벌 협력 허브 구축 등을 발표했다.

이같은 방향과 실천 공약을 관통하는

핵심은 선언에 머무는 인권이 아니라 실제 행정과 시민 삶의 기준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전남광주 인권헌장은 5·18 민주주의 정신과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담아 인권을 특별시 행정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담을 예정이다.

핵심 시민권인 노동권·주거권·이동권·정보접근권·환경권·돌봄권·행복추진권을 특별시 행정의 기본 권리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권 행정 원칙을 실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인권도시 추진조직을 설치해 인권 정책과 권리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미래형 인권행정 체계에는 디지털 권리와 알고리즘 차별 대응, 데이터 인권,



플랫폼 노동 권리 등 AI·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인권 과제까지 담아낼 계획이다.

시민 참여 구조도 구체화하고 무장애·포용 도시 구상 역시 행정 편의를 넘어 시민 삶의 불편과 차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인권도시 비전을 대한민국 인권 행정의 새로운 표준으로 세우고 세계 민주·인권도시 미래 플랫폼으로 도약시킬 방침이다.

민형배 후보는 “세계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배우러 찾아오는 국제 인권도시로 도약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이다”며 “UN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AI 인문 글로벌 협력 허브’를 구축해 AI 시대에 인간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국제 기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6·3 지방선거 브리핑

### 신수정 북구청장 후보, 릴레이 정책간담회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남인순 국회부의장 후보 등 참석

더불어민주당 신수정 북구청장 후보(사진)는 18일 옹골동 선거사무소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할 중앙 정치인들과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정책간담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남인순 국회부의장 후보를 비롯해 전현희·이수진·진선미·이재정·권항엽·김남희·박지혜·전진숙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들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신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남인순 국회부의장 후보는 “여성 국회의장의 장 후보로서 첫 유세지역에서 신수정 후보와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광주시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을 역임한 신 후보를 비롯해 광주·전남 여성 정치인들이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수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남인순 국회부의장 후보를 비롯한 여성 국회의원들의 방문에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여성 후보로서는 처음 가는 길인 만큼 큰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제2, 제3의 여성 자치단체장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오월정신, 미래산업 성장동력으로 연결”

### 임문영 후보, AI 시대·미래도시 성장 강조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광주 광산군 국회의원 후보(사진)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필요성과 전남광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임 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1980년 5월 전남광주는 존엄한 폭력 앞에서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냈다”며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연대와 책임, 질서와 시민성을 잃지 않았고,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대한민국 미래를 민주주의와 공동체, 시민 가치 위에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AI 시대와 미래도시 역시 민주주의 가치 위에서 가장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창의성과 혁신, 스타트업과 첨단산업은 자유롭고 열린 사회에서 성장한다”며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의 반대가 아니라 미래 성장



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의 오월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AI와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광산군에 대해 ‘광주 미래가 가장 먼저 시작될 곳’이라고 규정했다. 광주형 미래차 산업과 AI 산업, 첨단산단과 연구역량, 에너지·모빌리티 산업 기반이 이미 광산군에 집적돼 있으며, 여기에 전남광주의 공동체 정신과 성숙한 시민성이 더해지면 대한민국 미래산업 전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임문영 후보는 “전남광주의 민주주의 정신과 AI 시대의 미래전략을 연결해 광산을 대한민국 대표 AI·미래산업 혁신도시로 키워내겠다”며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반드시 실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민주주의와 시민의 가치 위에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

## 장석웅·장휘국 전 교육감 “장관호 지지”

### “장 후보, 통합시대 교육 비전·개혁 적임자”

###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시민단체 출신 전직 교육감 8명이 18일 장관호 전남광주통합시장교육감 후보(사진)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통합시대 교육 비전과 교육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 후보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과 장휘국 전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호 후보는 말로만 통합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가치를 교육으로 실천할 사람”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광노전 전 서울교육감, 김상근 전 경기교육감,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민병희 전 강원교육감,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도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교육감들은 “통합의 시대에 낡은 교육과 부패한 행정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전남 학생들의 자해·자살 시도 증가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증가, 전남·광주 교육청의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민주시민교육이 살아있는 교육, 도시와 농산어촌의 특성을 살리는 통합교육, 학생·교사·학부모를 함께 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장관호 후보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전직 교육감은 최근 충북·대전·세종·충남 등지에서도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지지 선언에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윤병태 후보, ‘나주대도약 10대 전략’ 발표

### 에너지특별시·정원관광도시·광역교통중심 등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윤병태 나주시장 후보(사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나주 지역위원회 당사에서 열린 ‘나주 원팀 필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전남·광주 통합시대 중심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민선 9기 나주대도약 10대 전략’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전남·광주 통합시대 중심 나주 비전 실현을 위한 ‘나주대도약 10대 전략’을 제시했다.

10대 전략은 △대한민국 에너지특별시 △광주광역시와 나주 시가 함께하는 경제 중심도시 △영산강이 흐르는 정원관광도시 △2000년 역사 위에 웅비하는 역사문화도시 △소득이 보장되고 미래가 있는 농업농촌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튼튼한 교육과 청년이 돌아오는 활력도시 △다뜻하고 촘촘한 복지도시 △사통팔달 광역교통 중심도시 등이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에너지특별시 나주”를 목표로 인공대양 연구시설 조기 완공과 글로벌 핵융합 연구

단지 조성, 전남·광주 에너지공사 및 세계에너지총회 유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2차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집중 이전과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청·의회 청사 유치로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를 통합시대 중심 거점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보증하는 나주형 햇빛소득마을 200곳 조성, 농산물 주요 품목별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푸드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마을을 살리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비전도 제시했다.

나주=조항천 기자 pose007@